

중국와인 ‘퍼플 미라클’... “세계를 놀라게 하라”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2022 中 국제와인문화여행박람회

우아하고, 유려하다. 타닌은 매끄럽지만 입안을 짙 채우고, 향긋한 과실향과 기분좋은 산도가 잘 어우러진다. 만들기도 잘 만들었지만 카버네 소비뇽 품종으로 이 정도의 균형감과 미네랄을 주는 것을 보면 분명 좋은 테루아가 기본일 터.

여기에 일부 섞인 중국 고유 품종 카버네 게르니히트(Cabernet Gernischt)는 신선한 과실미와 함께 어떤 중국 음식에 같이 마셔도 어울릴 만한 향신료 느낌을 채워준다. 시거(Xige) 와이너리의 ‘XEGE N50’다.

중국의 북서쪽 닝샤에 위치한 시거(Xige) 와이너리는 9월에도 한 낮의 기온이 35℃까지 올라갔다. 따가운 햇빛에 더 없이 건조했지만 풍력발전이 가능할 만큼 불어오는 바람은 포도알의 열기를 식혀준다. 타고난 좋은 땅과 함께 우아한 맛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다.



중국 닝샤 시거 와이너리에서 열린 시음회. /안상미 기자



중국 닝샤 허란산 일대 포도밭 전경. /CIWCTE

닝샤후이족자치구 량옌순 당서기는 지난 7일 열린 제2회 중국(닝샤) 국제와인문화여행박람회(CIWCTE) 개막식에서 “닝샤는 중국의 보물고도 같은 곳으로 타고난 자연환경과 국가적인 지원이 만나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고급 와인 산지가 되었다”며 “작은 포도”는 지역을 대표하는 ‘커다란 산업’이 된 것은 물론 닝샤가 세계와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500여명 안팎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했고, 현장에선 와인산업 투자협약도 체결됐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닝샤는 ‘중국판 보르도’로 불리는 곳이다. 프랑스의 보르

도와 같이 세계 와이너리의 황금벨트라고 불리는 북위 38도에 위치해 있다. 중국판 보르도라지만 기후는 확연히 다르다. 보르도가 온화한 해양성 기후라면 닝샤는 완전한 대륙성 기후다. 북쪽으로는 황하가 흐르고, 우뚝선 허란산 동쪽 기슭에 포도밭이 즐비해 있다. 서리 걱정없이 충분한 일조량을 누릴 수 있고, 큰 일교차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저녁은 포도를 천천히 익히고 좋은 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환경만 놓고 보자면 아르헨티나의 와인 명산지 멘도사와 비슷하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6, 2020년 두 차례나 닝샤를 직접 방문했다. 당시 시 주석은 “닝샤와인 산업은 중국과

인 산업 발전의 축소판”이라며 “10년, 20년 안에 중국 와인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언급한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Cineses wine: A marble to the world)’는 문구가 그대로 이번 박람회의 기조가 됐다.

와인을 만들기 좋은 환경만큼이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도 닝샤 와인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단순히 좋은 와인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막같은 곳에 포도나무를 심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빈곤했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했다. 닝샤에서 와인 산업을 황무지에 포도밭을 일군 ‘그린 미라클’을 넘어

일자리를 만들고 실제 지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끌어올린 ‘퍼플 미라클’이라고 일컫는 이유다. 이곳 와인의 브랜드 가치만 301억 위안(한화 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시 시거와이너리의와인으로 돌아가보자. 맛을 봤던 ‘XEGE N50’은 2018 빈티지로 2017년 세워진 와이너리의 실력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와인 업계 관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미라클’ 수준이다.

특히나 숙성 등 긴 시간(다른 말로 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야 하는 와인 산업에 있어 완벽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되어 있는 와인 3000배럴은 세계 어느 대규모 와이너리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다.

닝샤에 이미 세워진 와이너리만 116곳에 달한다. 중국 전역도 아닌 닝샤 지역에서만 오는 2035년까지 와인 6억병 가량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종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와인 6억병은 프랑스 보르도의 연간 생산량이다. 닝샤를 세계 와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와인굴기’는 이제 시작이다.

/중국, 닝샤(Ningxia)=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불안의 원인과 그 해소법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일을 하나 꼽아보라면 ‘머리 감는 행위’를 들 수 있겠다. 필자는 보통 사나흘에 한 번씩 머리를 감고, 긴 연휴가 끼어 있으면 두피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산다. 하루는 친구가 “왜 네 머리가 온종일 안 마르는지 궁금했는데 물기가 아니라 머리를 안 감아서 기름진 거였어!”라고 말하며 놀라 까무러친 적도 있었다.

약 두 달 전 강남에서 대학교 동기들을 만나 베트남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카페로 이동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필자는 재빠르게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머리를 가렸다. 그런데 친구 중 하나는 머리쭼미야 비를 맞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가방을 감쌌다. 대체 ‘오늘 감은 머리’보다 중요한 것이 뭐길래 그런가 했더니 그 가방이 500만원이 넘는 명품 백이었다고.

사람보다 귀한 물건이라니! ‘이러다 명품 가방용 우산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하루에도 수백번씩 경험하는 불안의 원인과 그 해소법을 다룬 책 ‘불안’에서 저자 알랭 드 보통은 “사치품의 역사는 탐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감정적 상처의 기록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하다”며 “이 역사는 남들의 경멸에 압박감을 느껴 자신에게도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 기 위해 텅 빈 선반에 엄청난 것들을 전시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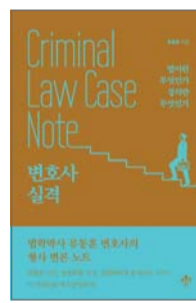
알랭 드 보통 지음/정영목 옮김/은행나무

했던 사람들이 남긴 유산”이라고 말한다. 책은 가난이 낮은 지위에 대한 전래의 물질적 형벌이라면 무시와 외면은 속물적인 세상이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감정적 형벌이라고 설명하며, 우리가 어떤 무작위 집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쇼펜하우어의 입을 빌려 “모든 질책은 그것이 과거에 적중하는 만큼 만 피해를 줄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질책을 받을 사람인지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자신 만만하게 그런 질책을 경멸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 372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변호사 실격

류동훈 지음/지노

책은 변호사의 가상 변론 노트이자 일기장이다. 저자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세월호 사고 등 우리 형법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솔하게 기록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다룬 사건들은 형법의 기본법칙 중에서 ‘범죄의 성립’과 관련한 선도적 사건(leading cas



e)들이다. 즉 이들은 범죄의 성립에 관해 형법의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 된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범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형법의 내용과 함께 당시의 사회적 상황, 나아가 오늘 우리의 모습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게 된다. 164쪽. 1만5000원.

낮선 사람에게 말을 걸면

조 코헤인 지음/김영선 옮김/아크로스

적절한 거리 두기와 예의 바른 무관심은 도시인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으로 여겨진다. 많은 이들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시생활에서 필연적인 감각의 과부하로부터 상대를 배려한다. 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비대면 서비스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을 걸 필요를 없앴다. 저자는 “이제는 피자를 먹기 위해 가게 점원과 통화하는 사소한 접촉으로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그 결과 사회성이 위협하리만치 떨어졌고 차별과, 혐오, 불평등이 증첩돼 동료 시민을 낯선 이로 바꿔놓았다”고 지적한다. 책은 혐오와 단절의 시대를 넘어설 다정함의 쓸모와 친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408쪽. 1만7800원.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

릭 포르케 지음/아체크 위즈니악 그림/장하라 옮김/서해문집

멸종 위기 동물들이 법정에서 싸웠다. 인간들이 “보호해줄 종을 선택하겠다”며 재판을 열었기 때문이다. 수리부엉이는 인간의 자비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갯지렁이는 벌레 2만2000종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한다. 붉은제독나비는 농업용 살충제를 포기하라고 경고한다. 심문은 맹렬하고, 동물들의 변론은 우아하다. 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 책은 생물 다양성 상실이 가져올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며, 공생을 위한 새로운 동맹을 제안한다. 200쪽. 1만4500원. /김현정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조두순도 다시 ‘치료감호’ 될 수 있어...법무부, 고강도 확대책 추진 /사진 뉴스스
▲ ‘박사방’ 30대 2명, 1심 집행유예...‘가담 정도 중하지 않아’

▲ 전국 8곳 도지사들, 정부에 쌀값 ‘21만원대 유지’ 촉구
▲ ‘일상까지 침투’...제주서 마약 사범 75명 무더기 검거



▲ 태풍 ‘난마돌’ 19일 日 규슈 상륙...제주 18일 영향권
▲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 검거...긴급인도구속 /사진 뉴스스